



한화손보-KT, 데이터기반 토탈솔루션 구축 MOU

한화손보는 KT와 보험-통신 데이터 기반의 토탈 솔루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디지털서비스 개발, 마이데이터 사업모델을 발굴해 다각적인 사업기회를 모색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최준기 KT AI·빅데이터(BigData) 사업본부장(왼쪽)과 임동일 한화손해보험 CPC 전략실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이현준 시멘트협회장·쌍용C&E 대표 시멘트산업 공로 '국무총리표창'



한국시멘트협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쌍용C&E 이현준 대표(사진)가 시멘트산업 위기 극복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한일시멘트 이자규 이사, 한일현대시멘트 조인석 이사, 삼표시멘트 김태진 부장, 쌍용C&E 정준덕 상무, 성신양회 송병찬 부장, 한라시멘트 천필찬 부장 등 8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하이트진로, 서울시 등과 '자전거 안전운전 캠페인'

하이트진로는 11~12일 이틀동안 서울시, 서울경찰청과 함께 자전거 안전운전의 중요성을 홍보시키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진행하는 자전거 안전운전 캠페인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급증, 사고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하이트진로



오비맥주, 11월11일 '가래떡데이' 사내 이벤트

오비맥주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래떡 간식을 제공하는 '가래떡데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비맥주 임직원은 우리 쌀로 만든 건강한 간식 가래떡을 즐기며 동료간 정을 나누었다.

/오비맥주



롯데, 해군·해병대에 '빼빼로 8만개' 위문품 전달

롯데는 11월 11일 '제 76주년 해군 창설 기념일'을 맞아 해군·해병대 장병 및 군무원을 위한 빼빼로 8만개를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롯데는 해군 창설 기념일을 축하하고, 해군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위문품을 지원했다.

/롯데지주

현대모비스, 시선인식 기반 어린이 교통안전 앱 개발

차별화 된 사회공헌활동 전개 등·하교길 다양한 상황 교육

현대모비스가 또 한 번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용 애플리케이션 '교교가는 길'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교교가는 길' 앱은 시선인식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가상의 교통안전 환경에서 여러가지 위험 상황을 실제로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장착돼 있는 전면 카메라를 통해 학생들의 눈동자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홍대부속초등학교 학생들이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교통안전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을 체험하고 있다. 이 앱은 교통안전 교육을 위해 시선인식 기술을 활용한 것 특징이다.

이러한 방식은 현대모비스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에서 영감을 얻었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한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은 운전자 동공인식을 통한 시선주적과 운전자의 눈·코·입을 통해 운전자의 실시간 상태 파악이 가능하다.

'교교가는 길' 앱은 여러가지 교통상황을 분석해 등·하교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교육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신도심, 구도심, 농촌, 공장과 등 4가지 유형의 등굣길 콘텐츠를 제공해 다양한 지역의 어린이들이 교통안전 교육에 참여할 계획이다.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실제 등교 환경을 동영상으로 재생해 교육의 몰입감을 높였다.

현대모비스는 앞으로 이 교육용 앱에서 수집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어린이 교통안전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선인식을 통해 부주의하게 인지하는 상황과 교통 안전 퀴즈 정답률 등을 분석해 지역별, 학교별, 학년별로 취약한 교통 사고 유발 포인트를 도출하고 교통 안전 정보를 원하는 학교에 제공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 ESG추진사무국장 이현복 상무는 "어린이들의 안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교통안전의식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CJ프레시웨이, 영유아 식습관 교육 나선다

세종시어린이집과 업무협약 쿠킹클래스 운영·콘텐츠 제공



CJ그룹의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전문기업 CJ프레시웨이가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와 영유아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환경 교육을 위해 힘을 모은다.

CJ프레시웨이는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와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영유아의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인적자원 및 정보 교류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에는 현재 330여 개의 어린이집이 속해 있다.

CJ프레시웨이는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에서 쿠킹클래스를 비롯해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직원 대상 영유아

지난 10일,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에 종이팩 수거함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협력해 세종시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종이팩 수거함 설치와 분리배출 수거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아이들이 우유, 주스 등 종이팩에 담긴 음료를 마시고, 종이팩을 세척, 전용 수거함에 넣어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방법이다.

CJ프레시웨이는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세종특별자치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에 종이팩 수거함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관련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CJ프레시웨이는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사업 참여 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자원순환에 대해 학습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GS칼텍스재단, 지역사회 위한 '참사람상' 제정

첫 수상자에 이태규 씨 선정 여수서 바다 투신 여성 구해



GS칼텍스재단은 'GS칼텍스 참사람상'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로 이태규씨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GS칼텍스 참사람상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거나 선행을 지속해서 펼치는 이들을 포상하기 위해 제정됐다. GS칼텍스 사업장이 있는 전남 여수 지역 개인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재단은 전날 여수 GS칼텍스 예율마루에서 GS칼텍스 참사람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첫 수상자인 이씨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전역을 앞둔 현역 병사인 이씨는 지난달 25일 휴가를 보내던 중 여수 돌산대교 아래 해상산책로 인근에

"이번 수상이 전역 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아 기쁘고, 여수 지역사회에 더욱 기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고,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에너지의 힘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한 수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적합한 인물로 판단되면 수시로 시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S칼텍스는 지난 2006년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공익재단인 GS칼텍스재단을 설립해 사회공헌 활동을 본격화했다. 설립목적은 학술, 예술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연구, 창작 등의 지원, 국내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에 기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의 육성이다. /양성운 기자

로레알코리아가 '서울은 감탄해-탄소를 줄여요' 캠페인으로 '탄소를 감량해'와 '탄소를 감량하는 우리의 모습에 감탄해'라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탄소 감량 실천을 인스타그램에 인증하는 '1인1감탄 챌린지', 챌린지 참여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식물을 기부하는 '탄소중립 교실숲'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된다. 로레알코리아는 자체 사회공헌활동인 '시티즌데이' 기간에 쓰레기를 줍는 '줍깅(줍다+조깅)'을 진행하고, 전 직원이 '1인1감탄 챌린지'에 동참해 텁블러 사용, 장바구니 이용, 불필요한 조명 끄기 등 탄소저감 활동 인증샷을 올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챌린지 참여자의 이름으로 초등학교 50개 학급에 공기정화식물을 기부하여 '탄소중립 교실숲'을 조성하기로 했다. 10그루가 기부되면 1개의 '탄소중립 교실숲'이 조성되며, 50학급이 조성되면 연간 220kg의 이산화탄소와 497g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원은미 기자